

〈田山草 박사 연세대 간호대학장〉



『창립 50주년기념총회의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간호사업을 여성전문직업단체로서 우리 사회에 소개함에 있어, 과거 50년 동안 국민보건향상과 인간의 복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사업을 이룩한 대한간호협회로서 부각시키었으며 협회자체의 발전의 계기를 가져오게 했던 업적이나, 제15회 국제간호협회의 Mexico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참석하여 Panelist로서 한국의 외교와 간호사업을 소개하고 세계적 간호사업의 동향을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의 업적이라기 보다 선배 및 여러회원의 숨은 업적』이라고 田山草회장은 지난 2년의 임기를 조용히 회상하신다.

금년 총회를 기해 유입된 田박사는 연세간호대학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아마 모르는 회원이 없을 것이다.

『質적으로도 智적으로 본회는 많이 발전되어 왔으며 처음 회장에 취임하던 2년 전보다 그간 교육 Program을 통해 회원이 꼭 倍加되어 7천명에서 현재 1만5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協會의 일이란 본래 누구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중책을 맡은 임원들이나 실무진 그리고 회원 자자가 모두 열성적으로 참여할 때 발전이 있는 것이라 봅니다. 이렇듯 莫強한 會를 이끌어

留任의 포부를 말하는

田山草 회장

나가기 위해선 총회에서 결의된 各部에 벌려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이룩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지부육성과 집행부의 기능을 잘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地域社會 간호사업의 회일선에서 직권보장이 안된체 현지 간호사업에 몸담고 있는 숨은 회원들의 문제를 시급히 策도에 올려보 꺾어야 하는 일이며, 또한 최근 物議가 된 파득간호원과 많은 간호보조원들의 당면문제해결을 위해 시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1만5천의 회원이 국내외 각처에서 인류의 건강과 국민보건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가슴뿌듯한 현실을 항시 직시하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그들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고 권익을 쟁취할 수 있도록 內實을 추구해 가는데 치중할 작정입니다.』

田회장은 대학장의 중책과 협회장의 스임을 다하는 데는 「회원의 참여와 협조가 따라야 한다」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병행시켜 실천해 보겠다」고 의욕적인 포부를 보이고 있다.

이화여고를 거쳐 연세간호대학, 미국 「에모리」대학 대학원을 나온 재원이며 73년에는 연세대학에서 영예의 이학박사학위를 받은바 있다.

활글르는 “내외과간호학” “외과간호학” “가정간호” 등이 있으며 각 대학원의 교수로서 간호학문에 공헌한바 큰 학자이다.

취미는 틈틈이 그림 그리는일, 탁구는 「프로급」.

치부육성과 집행부기능을 강화  
內實추구에 重點두고